금주의 법구-〈법구경〉
잡초가 밭을 망치듯
성내는 마음이 사람을 망친다
성내는 마음 벗어나면 그 복은 끝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6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7호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포켓몬GO' 열풍 '불교GO'도 될까

[이슈] 증강현실+포켓몬, 불교계 과제는?

세상이 '포켓몬GO' 열풍으로 떠들썩하다. '포켓몬GO'는 일본 게임회사 닌텐도가 만든 애니메이션 '포켓몬'과 구글 지도정보를 기반한 증강현실(AR)이 결합한 게임이다. 한국에서는 정식서비스가 되지 않지만 속초와 양양 일부지역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낙산사를 비롯한 이 지역 사찰에도 때 이른 인파가 몰리고 있다.

증강현실을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이 기존 문화와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지금, 불교계가 신기술 개발에 맞춰 전통문화 콘텐츠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켓몬GO, 포교에도 활용 가능

'포켓몬GO'의 열풍에서 잘 만든 게임이나 영화, 프로그램 하나가 포교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양양 낙산사의 경우 '포켓몬GO' 게임 중 몬스터가 나오는 '포켓 스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포켓몬 성지'가 됐다. 유명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게임을 계기로 낙산사를 찾게 된 이들이 많다는 후문이다.

김득중 낙산사 종무실장은 "이번 포켓몬GO는 홍련암, 의상대, 부도탑 등 문화재에 포켓 스탑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역사와 문화를 접하게 한다"며 "외국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사찰에 관련 내용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산사 前주지 무문 스님은 이런 열풍을 포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무문 스님은 "일반인들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켓몬GO에서는 종각, 부도탑 등 간단한 명시만 있지만, 이를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소개하면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이미 '증강현실' 도입했지만

불교계에서는 불교IT기업인 '다나'가 2011년 '연등' 앱을 통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연등보기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 문화재청도 2015년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불국사 안내 앱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2016년 6월 29일 국정감사에서는 불국사 앱의 다운로드건이 2288건으로 당초 목표의 0.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나의 '연등' 앱도 다운로드가 5,000여 건에 불과하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불교계의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실패한 이유는 정보전달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재미, 소통 등의 요소와 결합해야 하기에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콘텐츠 개발, 꾸준한 후원 절실

불교계 IT기업 다나 최대종 대표는 "불교 콘텐츠에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포켓몬GO의 열풍은 20년 넘게 지켜온 캐릭터의 힘"이라며 "불교계는 이를 가공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노력에 대한 꾸준한 후원이 미비할 뿐"이라고 말했다.

불교계는 콘텐츠 개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 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 취약하다. 대표적인 불교콘텐츠 관련 상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에서 '콘텐츠 분야'가 지난해 수상자를 내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명법 스님은 "콘텐츠 개발에 대한 후원, 이를 알아보는 안목, 또 이를 활용하는 불자들의 관심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개별적인 개발 후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교색을 띈 외부 콘텐츠의 경우 이를 심사, 지원하는 불교계 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켓몬GO 성공요인은

포켓몬 애니 시리즈 성공 견인
불교계 관련 콘텐츠는 '황무지'
"콘텐츠 육성 네트워크 구축해야"

포켓몬GO 불교계 영향

양양 낙산사 때 아닌 인파 몰려
불교 포교 활용가능성 드러나
"기성문화 신기술 접목 관심을"



팥빙수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아름다운동행은 7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팥빙수와 센터운영지원금을 보시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과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이날 만든 팥빙수를 들고 불자들에게 그 시원함을 전하고 있다. 이번 팥빙수 전달은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는 '핫(HOT)한 여름, 쿨(COOL)한 나눔' 캠페인의 일환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보시를 시작으로 전국 아동센터 50곳에 30만원 상당의 제빙기와 팥빙수 재료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사드 배치, 분열 · 갈등 초래할 것"

불교계 시민단체 15곳
21일 국방부서 규탄 집회

환경평가 배제 절차 지적
반민주 정책에 한 목소리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불교시민사회단체 15곳이 국방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불교계 시민사회 단체 15곳이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 ·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이하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7월 2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입장문을 통해 사드 배치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킬 것 △북핵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적합한지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남북 분단을 더욱 고착화 시킬 것 △국내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국내외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환경평가를 배제한 채 강행된 사드배치는 지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며, 정치 · 지역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사드 배치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중국 · 러시아와 관계 악화도 우려했다.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서 사드배치는 한반도가 신냉전체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 등 보복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바른불교재가모임 등은 부처님께서 '보살은 오래도록 무기를 만드는 일이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경전문구를 인용하며 "사드배치 등 군사력 증강만이 효용성 있는 방어수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일문 스님과 법일 스님 등 단체 대표들은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가 불교계시민단체들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자리에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스님, 이영철 신대승네트워크 수석공동대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쉼'의 의미부터 여름산사 · 축제까지… 여름 섹션 '休' 별지 12면 발행

인도 '나란다 대학' 세계문화유산 등재

40차 세계유산위서 결의

세계최초의 대학인 나란다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40차 회의를 열고, 나란다 유적을 비롯한 21개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세계유산위원국 21개국 및 세계유산협약 위원국 중 108개국 대표단 약 2,00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총 34건에 대한 세계유산 심사가 이뤄졌으며, 중 문화유산 12건, 자연유산 6건, 복합유산 3건 등 총 21건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총 814건, 자연유산 총 203건, 복합유산 총 35건으로, 165개국의 1,052건이 됐다.

이중 이번에 등재된 인도의 '나란다 마하비하라 고고유적(나란다 대학)'은 불교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적이다.

인도 비하르주(州) 파트나 남서쪽, 옛 마가다왕국의 수도 왕사성(王舍城) 북쪽에 있는 나란다 유적은 쿠마라굽타 1세(415~454)가 오늘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나란다 사원을 창건한 이후 역대 굽타왕조에 의해 증축 · 확대됐다.

이곳에는 많은 승려 · 학자가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7세기에 유학온 중국 승려 현장은 승려학자가 3,000명에 이른다고 기술했다. 처음에는 유식학파(唯識學派), 다음에는 밀교(密敎)의 교학(敎學)을 연마하는 학문의 중심지로 번성했으나, 12세기 말 이슬람에 의해 파괴됐다.

1915년 인도 고고학조사단에 의해 발굴돼 남북 500m, 동서 250m의 사역(寺域)에 사각형의 수도원, 5동의 사찰, 10동의 승방(僧房) 등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중국의 '저장성 화산 암각화 문화경관',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 작품들 : 근대운동에 대한 탁월한 기여'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터키 군부 쿠데타로 인해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UN 안전규정에 따라 7월 17일자로 종료됐으며,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세계유산 운영지침 개정 논의 등 나머지 의제는 오는 10월 초 파리에서 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내년 7월 중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불조정맥 제78대
대한불교조계종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정맥선원 여름 수련회
8/12(금)부터
8/15(일)까지
3 박 4 일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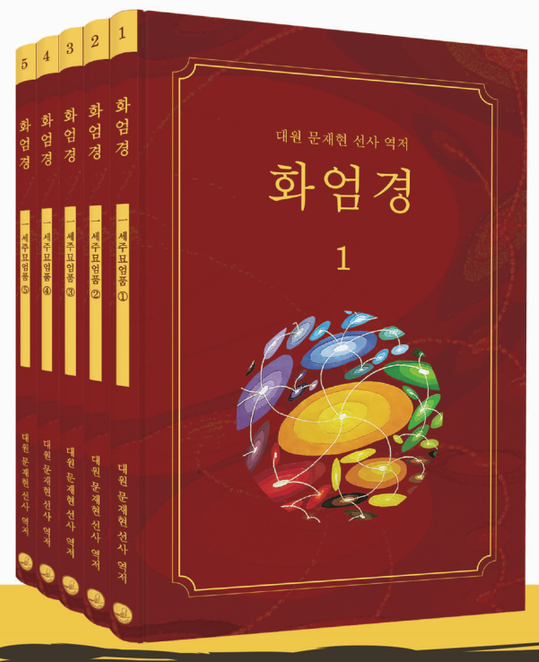
주요 프로그램
법문시간 : 대원 선사님의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통쾌한 선법문을 만나십시오.
문답시간 : 선사님께 직접 자신의 수행을 세밀히 점검,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선시간 : 선사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참선지도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선정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 소 포천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 교 재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참가비 10만원
신청문의 성불사 010-6431-8805 /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책 1~5권 무료공개

전자책 1,2,3,4,5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차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